주택가 주차 차량 사이드미러서 불

지난 16일 밤 10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07터53××호 소렌토 승합차(소유자 신모·30) 조수석 사이드미러(side mirror)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차량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불이 난 지 얼마 안 돼 주민 박모(28)씨가 발견, 진화해 차량 바깥쪽만 불에 그을렸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난) 차량은 2002년 식으로, 두 달 전 광주의 한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불이 난 차량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거울이 접히는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설치돼 있었고, 유리는 열선이 깔려 있는 '열선유리'(Heat Strengthened Glass)이다.

'열선유리'는 보통 유리 표면에 '실버페이스트'(Siver Paste)를 프린트해 융착·강화시킨 것. 양쪽 단자에 전기를 연결하면 열선에서 발생된 열에 의해 표면의 서리나 안개가 제거된다. 이 열선은 또 뒷유리창과 별도로, 앞 유리창에 있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버튼을 누르면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돼 있다. 열선에는 200와트(W)의 전류가 흐르며, 온도는 60~80도 정도다.

경찰은 사이드미러에 표면에 부착된 0.5mm 두께의 열선 배선이 과열해 서로 붙으면서 불이 났거나, 사이드미러를 접는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해남 어민들에 폭언 '파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이 해남·진도 어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해남지역 김 생산자연합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해남군 한 식당에서 수협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이영호 의원이 김 생산자연합회 해남지회 박모씨 등이 들어와 '물김 폐기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자 "젊은 사람들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

이어 이 의원은 빈 그릇과 유리컵을 각각 밥상과 방 바닥에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해남수협 직원인 김모씨가 튕겨나온 빈 그릇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 의원 측은 "식사에 앞서 열린 어민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은 상태여서 추가 건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그러나 어민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식사 자리에 들어와 일방적인 주장을 개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생사 갈린 서남해안 '홧낙지 잡이'

어둠 속 밀물때 갯벌 못 빠져나와
신안, 1명 사망·일가족 3명은 구조
300여 어민 연중 위험 무릅쓴 조업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어법(漁法) '홧낙지' 잡이가 어민들의 삶과 죽음을 갈랐다. 바닷길을 잘 아는 갯가 사람들에게도 칠흑 같이 어두운 갯벌은 생(生)과 사(死)의 경계지대였다.

지난 20년 동안 '홧낙지' 잡이를 해 오던 황모(51·목포시 산정동)씨가 부인 이모(52), 사위 김모(36)씨와 함께 신안군 지도읍 태천1구 앞 바닷가를 찾은 것은 16일 오후 7시30분께. 달 빛 한 점 없는 바다는 어둠 속에 고요하기만 했다. 황씨 일행은 손전등 하나로 물 빠진 갯벌을 따라 500여m 바다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켜 놓은 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밀물이 시작되면서 너울처럼 움직이는 바닷물 위로 낙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황씨 가족은 낙지를 손으로 잡아 허리춤에 묶은 바구니에 담았다. 한 시간여 동안 잡은 낙지는 대략 10여 마리. "한 접(20마리)만 잡아도 4만원 벌이는 될 텐데"… 마음이 다급했다.

1시간30여 분이 지난 밤 9시께. 주변 갯벌에 물이 차오르는 듯 싶더니 순식간에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위험을 느낀 이들은 바다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당황했다.

황씨는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지만, 물에 젖어 통화가 되지 않았다. 좀더 높은 곳에 있던 사위 김씨가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 이때가 밤 9시15분. 전화신고를 받은 신안 지도소방서는 목포해경 지도 출장소에 통보했다.

지도 출장소 김선관(45) 경사는 사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꼭 구조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율구조선을 타고 사고 지점으로 향했다. 마을 주민 김용백(33)씨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 바다에 뛰어들어 50여m 헤엄쳐 간 뒤 황씨 가족들을 한 명씩 직접 구조하고 탈진했다.

황씨 가족들이 죽음의 경계를 넘던 순간, 다른 곳에서 '홧낙지'를 잡던 어민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신안군 암태면 당산리 박모(32)씨가 같은 날 밤 갯벌에 나갔다가 들물이 찬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이다. 박씨는 17일 오전 7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남해안은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지형을 잘 알지 못한 채 갯벌에 나갈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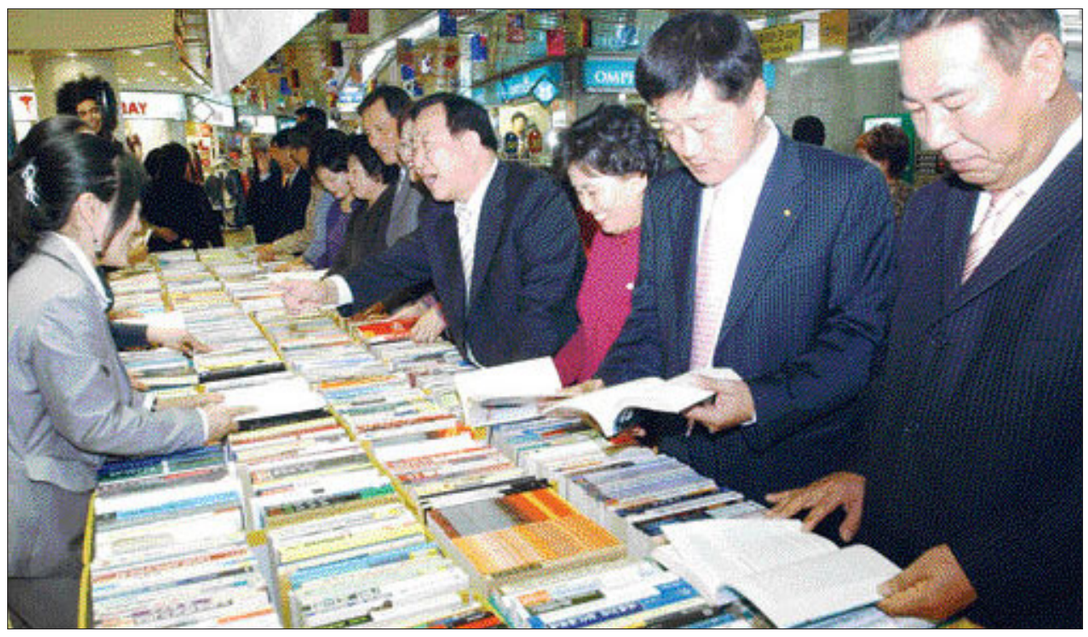
한편 목포·신안·무안 등지에서 '홧낙지' 잡이에 나서고 있는 어민들은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홧낙지 잡이란?

압해도·증도·병풍도·지도 등 신안과 무안 등지에 남아있는 '홧낙지'(홰낙지·홧불낙지) 잡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명맥을 이어온 방식. 3~11월까지 매달 음력 초여드레와 스무사흘(8일과 23일), 조류가 가장 약한 조금 후 4~5일간 달빛이 약할 때 이루어진다. 횃불을 만든 뒤 간조 때 바다로 나갔다가, 밀물을 따라 갯벌을 빠져나오면서 새물을 먹으러 뻘 밖으로 나오는 낙지를 손으로 '줍는' 전통어법.

하지만 물이 차는 고랑을 건널 때나 뻘구덩이에 빠질 경우 익사하는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요즘은 횃불 대신 오토바이나 농업용 서치에 배터리를 연결해 불을 밝힌다.



"책 바꿔가세요"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지부'(회장 김동기)가 16~18일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개설 중인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 문학·아동·교양류 등 각종 우량도서 3천500여 권이 나온 이번 도서 교환시장에서는 1인당 3권 이내로 도서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대생이 아토피 피부염 비관 자살

"치료안돼 힘들다" 우울증 겹쳐

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우울증을 앓던 의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H아파트에서 C대 의예과 2학년 이모(21)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4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이날 오후 '몸이 아프다'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파트 발코니에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의 방에서는 '아토피가 심해져 힘들다. 머리가 빠지고 각질이 생긴다. 의욕이 감퇴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A4 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하체 부분에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왔고,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생겨 광주시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이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영·유아 21%가 '고통'

▲아토피(Atopy)=그리스어로 '이상한' '뜻을 알 수 없는'이란 말로, 원인과 증세가 다양하고 치료법도 없는 피부병. 유전되고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며,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꼽힌다. 환자의 90%는 5세 이전에 발병하며 이 중 10% 정도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된다.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피부에 빨간 무늬가 생기는 등 염증도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광주지역 영유아의 유병률은 21%로 집계됐다.

"동료 애인과 술마신다" 조폭들 주먹질

쌍나팔

○…같은 조직 동료와 사귀었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조직 폭력배 4명이 경찰에 덜미.

○…17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폭력전과 19범인 김모(28·무등산파 행동대원)씨 등 4명은 지난 5월30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H 포장마차 앞에서 이모(여·25)씨가 백모(26)씨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씨 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같은 조직 동료의 애인이었던 이씨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자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